



“해양치유 음식 먹으면 더 건강해져요”

전북 해조류 떡갈비·색깔보리 톳밥·해조류 샐러드 등
완도군, 해양치유밥상 개발...하루 50인분 한정, 예약 필수

청정 완도의 건강한 먹거리로 차린 해양치유밥상이 나온다.
완도군은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해양치유밥상을 개발했다. <사진>전북 내장과 톳을 넣은 전북 해조류 떡갈비와 전북 내장, 톳·미역귀·색깔보리를 넣은 색깔보리

톳밥 등 청정 완도의 건강한 맛을 담았다.
제철 생선집, 김 장국, 해조류 샐러드, 해조류 전, 해조류 무침은 물론 완도 과일 음료 등 완도에서 나는 음식 재료로 해양치유밥상을 구성했다.
치유밥상은 5일부터 ‘모래밭’ (해양치유밥상 1

호점 지정 예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선한 재료로 하루 50인분만 준비하다 보니 최소 1시간 전 예약은 필수라고 완도군은 전했다.

치유밥상이 완도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을 내년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희망 외식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완도는 청정바다에서 자란 수산물과 자연 그대로 농축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북의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마린 드럭스’ (Marine Drugs))에 지난 4월 게재됐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양기후와 해수, 해풍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 치유를 하고 해양치유 음식을 먹으면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400만 관광시대 연다” 해남문화관광재단 본격 활동

생활·생태·음식관광에 중점

체류형 관광도시 발전 지원

해남군의 문화관광산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최근 해남읍 가람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출범식 대신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병덕 해남군의의장, 지역 문화관

광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현판식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재단은 이병욱 대표이사를 포함해 2개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광상품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생태·음식관광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문화관광재단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기획연구팀과 문화예술지원팀을 신설해 4팀 20명까지 조직을 확장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관광객 400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재단 출범과 함께 다양한 지역 내외 기업 및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남군 문화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25년까지 158억 투입

상권·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광군 도동지구가 3번의 도전 끝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돼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일반근린형’ 사업에 영광 도동지구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광 뉴트로(Newtro) 재생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9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16일 전남도 광역선정 종합평가를 거쳐 7월30일부터 국토부 서면·중

합발표 평가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18년, 2019년 2차례 도전에 실패한 후 선정됨에 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58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주거지·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쇠퇴한 지역경제와 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농어촌버스 노선·운영방안 개편 추진

남악·오룡신도시 인구 증가 대처

무안군이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과 운영제도를 개편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남악·오룡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여건 변화와 신규 대중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버스 운송산업 여건 악화로 인해 재정 부담과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개선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능·유형별 노선 운영계획 및 배차계획 수립,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행복택시)과의 연계 방안, 비효율적인 노선 조정을 통한 재정부담 절감, 농어촌버스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등이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10월~11월 중 각 읍·면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군민 중심의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 민원과 의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진도군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진도군이 ‘2021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도군 SNS’는 소통하는 채널을 목표로 각기 다른 SNS 채널의 이용층과 특성을 반영해 세대별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MZ세대 맞춤형으로 다양한 사진 등을 많이 활용하고 전 채널과 연계한 SNS 이벤트 등을 수시로 개최해 ‘보배섬 진도’라는 브랜드 가치와 온라인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특히 40여명의 적극적인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양방향 소통을 끌어낸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재미와 정보를 모두 충족시키는 참신한 주제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주 1~2회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신안군, ‘홍물 방치’ 민간 매각 폐교 환수 추진

섬 지역사회 교육·역사 문화공간

주민복지시설·기념관 등 활용

“지역주민의 소중한 자산인 폐교를 다시 찾아오겠다.”

신안군이 민간에게 팔린 폐교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 섬 폐교는 1960~70년대 먹고살기도 힘든 시기 지역주민 자발적 기부와 울력 등 품앗이로 형성된 소중한 자산이다.

학교 자체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섬 지역사회의 교육·역사·사회·종교 등 종합 생활 문화공간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다.

신안교육지원청은 1일 현재 80개(신안군 37개, 개인 43개)의 폐교를 매각했다.

하지만 민간에게 매각한 일부 폐교 중 홍물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려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신안군이 민선 4기 이후 관내 폐교를 적극적 매입, 활용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사치분교 만재분교는 주민복지시설로, 비금 대



신안지역에 방치된 폐교.

광분교는 이세돌 바둑기념관으로, 하의초 대광분교는 하의3도 농민항쟁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편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폐교가 다시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안군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매각 당시 계약목적 위반(해지약정)에 해당하는 폐교는 폐교재산

반환 소송 가능성 유무를 타진하고 있다.

군은 전라남도 교육청과 신속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매각약정 미이행 폐교에 대해 필요한 절차·방법을 모색해 지역민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다시 찾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